

#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Alienation in Single Mother-Headed Family and Two-Parent family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조 교수 이 윤 주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김 경 화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Dept. of Education,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Lee, Yoon-Joo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Professor : Kim, Kyong-Hwa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alienation in both single mother-headed family and two-parent family. The subjects were 54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82 single mother-headed family's adolescents and 466 two-parent family's adolescents in Keoungbok.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test, standard multiple-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single mother-headed family's adolescents were perceived less positive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higher alienation than two-parent family's adolescents.
- (2) The adolescents' alienation was associated with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in both single mother-headed and two-parent family. The less positiv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he higher adolescents' alienation.
- (3) The family structure(single mother-headed or two-paren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adolescents' alienation. But when the effect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was controlled, the effect of the family structure became non-significant.

---

▲주요어(Key Words) : 한부모 여성 가정의 청소년(the single mother-headed family's adolescents), 모-자녀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adolescents' alienation)

---

\* 이 논문은 동일문화장학재단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교신저자 : 민 하 영(E-Mail : hymin@cu.ac.kr)

## I. 문제제기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배우자 사망, 이혼, 배우자 가출 및 유기, 미혼모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조성연, 2004). 매년 전체 가구수의 약 7~9%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80% 이상이 여성 가구주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한부모 가족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이 갖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모자보호 시설 운영,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 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도모를 위한 복지자금 대여 등 생활 안정 기반사업(여성가족부, 2005)을 마련하여 실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정 복지 사업을 이관받은 보건복지가족부안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중 여성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문제만큼이나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되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독, 우울, 절망감 등 심리적 불안과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김오남, 2004, 2005; 김오남·김경신, 1998)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여성 가장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성 한부모 가정의 유아기 자녀들은 보다 많은 외현화 문제(Olson, Ceballo, & Park, 2002)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낮은 학교 성적(오승환, 2001; Murray & Sandqvist, 1990)과 낮은 자아 통제감 및 자아 가치감, 낮은 복지감 및 적응력(Borgers, et al., 1996; Murray & Brody, 1999; Show, et al., 1999)이 보고되고 있다.

여성 한부모와 생활하는 자녀의 심리, 정서적 적응과 관련해 볼 때 청소년기 자녀는 유아기나 학령기 자녀에 비해 보다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환경적 특성은 가족구조와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건강한 정체성 확립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외감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집단에 대한 소속을 통해 일차적으로 발달함을 고려해 볼 때, 주류 집단의 특성과 구분되는 한부모라는 가족구조 및 경제적 어려움은 정체감 확립의 발달과업을 안고 있는 청소년에게 심리, 정서적 발달의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소외감을 발달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리감(*estrangement*)이라는 라틴어의 *alienare*로부터 발달한 용어(Mann, 2001)인 소외감이란 자신과 환경의 관계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 믿음 또는 마음 상태로서(McClosky & Schaar, 1965), 무력감, 무의미, 규범 상실, 사회적 고립, 자아 유리, 문화적 이탈 등이 포함된다(Seeman, 1975). 이러한 소외감은 흡연, 약물사용 등의 문제 행동 및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계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강완숙·유안진, 2000; 김광수, 1990; 이은숙, 2007; 이은숙·김정숙, 2004; Calabrese & Adams, 1990; Heaven & Bester, 2001; Home, 1998, Sankey & Huon, 1999). 또한 소외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청소년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함께 우울 반응을 보이며,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비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강완숙·유안진, 2000; Heaven & Bester, 2001).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소외감의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소외감 발달이 우려될 수 있는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중재와 예방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심리적 소외감을 예방하거나 중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하나로 가정 내 어머니를 고려할 수 있다. 어머니는 일상에서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복지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와 자녀간 관계는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공유' 또는 '공통'의 어원으로부터 발달한 의사소통 개념은 정보, 신념, 의견, 태도, 사실, 생각 등을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행동(김오남·김경신, 1994)으로써 서로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상호반향적 과정(민하영, 1992; Galvin & Brommel, 1996)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소속감에 대한 결핍 또는 애정과 승인 및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 부족을 통해 심리적 소외감 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Holcomb-McCoy(2004)의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은 대인간 애정 및 상호 공유를 토대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소외감 발달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외감간의 가능성을 지지할만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김오남·김경신, 1994; 최규련, 1998)는 대부분 자아감(공인숙 등, 2005; 김애경, 2001; 김성일·김남희, 2001; 이희자·김경원, 2000)이나 문제행동(정유미·김득성, 1998), 비행(민하영, 1992; Clark & Shields, 1997), 학교생활적응(김영미·심희옥, 2000; 백경숙·권용신, 2004)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친 부모 가족과 구분되는 가족구조안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소외감 발달이 우려되는 여성 한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녀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외감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현재 국내 연구에선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여성 한부모 가정의 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간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여성 한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이 여성 한부모 가정이라는 가족구조의 문제로 우선 접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자녀 관계라는 가족기능의 문제로 우선 접근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구성 시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간의 관계를 여성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소외감을 조기 중재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심리적 복지 향상을 모색하거나 개발하려는 복지 및 교육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유용할 수 있는 자녀교육 자료 및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활용기대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여성 한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유의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가족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7~9%내외 차지한다는

점과 여성 한부모 가정이 빈곤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북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저소득 지역(대구광역시청, 2007)의 중고등학교에서 우선 자료 수집을 하였다. 저소득 지역내 중고등학교에서 자료 수집을 유의표집 한 것은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료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보다 많은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에 기초해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료를 유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남자 43명(52.4%), 여자 39명의 총 82명(47.6%)이었다. 이중 중학생은 24명(29.3%)이었으며 고등학생은 58명(70.7%)이었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으로 배우자 사망 15명(18.3%), 이혼 41명(50%), 가출 3명(3.7%), 기타 23명(28%)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 가정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51명(62.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3명(15.9%), 300만원 이상이 4명(4.8%), 무응답이 14명(17.1%)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Murray & Brody, 1999)을 고려하여, 양부모 가정 청소년은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학교 생활을 함께 하는 저소득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소득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중학생 240명(51.5%), 고등학생 226명(48.5%)이었으며, 남자 223명(47.9%), 여자 243명(52.1%)이었다. 월평균 가계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131명(29.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22명(26.2%), 300만원 이상이 153명(32.8%), 무응답이 53명(11.4%)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모-자녀 관계

모-자녀 관계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아동학, 교육학 및 사회복지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아이겐 값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문항은 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와 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과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와 같이 의사교환에 있어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조심스러우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이며 문제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렇다(3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4점)',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폐쇄적이고 문제성 있는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소외감 척도

Seeman(1972, 1975)의 소외개념을 사용하여 대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강완숙과 유안진(2000)의 소외감 측정 척도 중 무력감(10문항), 무의미(10문항), 사회적 고립(10문항), 자기 유리(10문항)에 관한 문항을 아동학, 교육학 및 사회복지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이 중고등학생에 맞게 보완하여 청소년용 소외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용 소외감 척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아이겐 값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외감 하위 척도 중 무력감이란 자신의 행위를 개인적 혹은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고 이와 같은 통제는 외부의 힘이나 운명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무의미란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고립이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자기 유리란 개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며, 비록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영역은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3점)', '늘 그러는 편이다(4점)'의 4점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응답가능 범위는 40점에서 160점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

하도록 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 3. 조사 절차

대구경북 소재 10개 중고등학교 6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저소득 지역의 중고등학교였으며 질문지 배포 전 학교로부터 자료 수집을 허가받았다. 질문지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받은 각 학교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응답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 수거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자료, 또는 조손 가정 청소년의 자료 등은 제외하였다.

한편 중고등학교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추천에 기초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 최종 사용된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료는 82부였으며,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료는 466부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t검증, 표준적 및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여성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간 차이

<표 1>을 보면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보고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각각 평균 64.55(13.46), 69.26(11.36)으로 나타났다. 모-자녀 의사소통의

<표 1> 여성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의 t검증 결과

	모-자녀 의사소통 평균(SD)	심리적 소외감 하위영역 평균(SD)				심리적 소외감 평균(SD)
		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유리	
한부모(82)	64.55(13.46)	20.96(5.02)	22.00(5.66)	20.54(4.96)	22.38(4.56)	85.88(7.84)
양부모(466)	69.26(11.36)	19.60(5.34)	19.94(6.03)	18.96(5.06)	20.80(4.95)	79.30(19.44)
t값	-3.39**(p=.001)	2.15*(p=.032)	2.88**(p=.004)	2.61**(p=.009)	2.69**(p=.007)	2.86**(p=.004)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점수범위가 20점에서 100점임을 고려해 볼 때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모-자녀 의사소통 지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긍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3.39, p=.001$ ). 한편 한부모 및 양부모 청소년은 심리적 소외감의 각 하위영역에서 20점대의 평균 점수를 보고했다.

이는 각 하위영역의 응답범위가 10점에서 40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소외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무력감( $t=2.15, p=.032$ ), 무의미( $t=2.88, p=.004$ ), 사회적 고립( $t=2.61, p=.009$ ) 및 자기 유리( $t=2.69, p=.007$ ) 등의 심리적 소외감( $t=2.86, p=.004$ )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모두 심리적 소외감 가운데 자기 유리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

<표 2>와 <표 3>을 보면,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은 모-자녀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이지 못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 의사소통은 여성 한부모 또는 양부모라는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약 1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한부모 가정  $R^2=.15$ , 양부모 가정  $R^2=.15$ ).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소외감 중 무력감은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18% 설명되는 것( $R^2=.18$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 중 무력감이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10% 설명되는 것( $R^2=.10$ )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있다. 무의미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 모두 각각 10%, 14% 내외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기 유리의 경우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이 11% 설명하는 것( $R^2=.11$ )에 비해 여성 한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은 5% 정도( $R^2=.05$ )로 양부모 가정에 비해 적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표준적 단순회귀분석

한부모	심리적 소외감 하위 영역								심리적 소외감	
	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31.07 (2.49)		30.68 (2.93)		29.29 (2.53)		27.39 (2.43)		118.44 (9.03)	
모-자녀 의사소통	-.16 (0.4)	-.42	-.14 (0.5)	-.32	-.14 (0.4)	-.37	-.08 (0.4)	-.23	-.50 (.14)	-.38
F값 (df 1.80)	17.13*** p=.000		9.13** p=.003		12.55** p=.001		4.43* p=.038		13.55*** p=.000	
$R^2$	.18		.10		.14		.05		.15	

주) \* $p<.05$ , \*\* $p<.01$ , \*\*\* $p<.001$

<표 3>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표준적 단순회귀분석

양부모	심리적 소외감 하위 영역								심리적 소외감	
	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30.04 (1.45)		32.83 (1.62)		30.95 (1.34)		30.74 (1.34)		124.56 (5.15)	
모-자녀 의사소통	-.15 (0.2)	-.32	-.19 (.02)	-.35	-.17 (.02)	-.39	-.14 (.02)	-.33	-.65 (.07)	-.38
F값 (df 1,464)	52.07*** p=.000		64.95*** p=.000		82.61*** p=.000		56.43*** p=.000		79.21*** p=.000	
$R^2$	.10		.12		.15		.11		.15	

주) \* $p<.05$ , \*\* $p<.01$ , \*\*\* $p<.001$

<표 4>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가족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단 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F값(df)	R <sup>2</sup>
		B(SE)	심리적 소외감 β		
1단계	상 수	72.73(2.77)		8.17(1,546) p=.004	.02
	가족구조*	6.57(2.30)	.12** p=.004		
2단계	상 수	118.92(5.46)		50.75(2,545) p=.000	.16
	가족구조	3.61(2.15)	.07 p=.09		
	모-자녀 의사소통	-.62(.07)	-.37*** p=.000		

주) 가족구조 더미변수: 한부모 1, 양부모를 0으로 함  
 주)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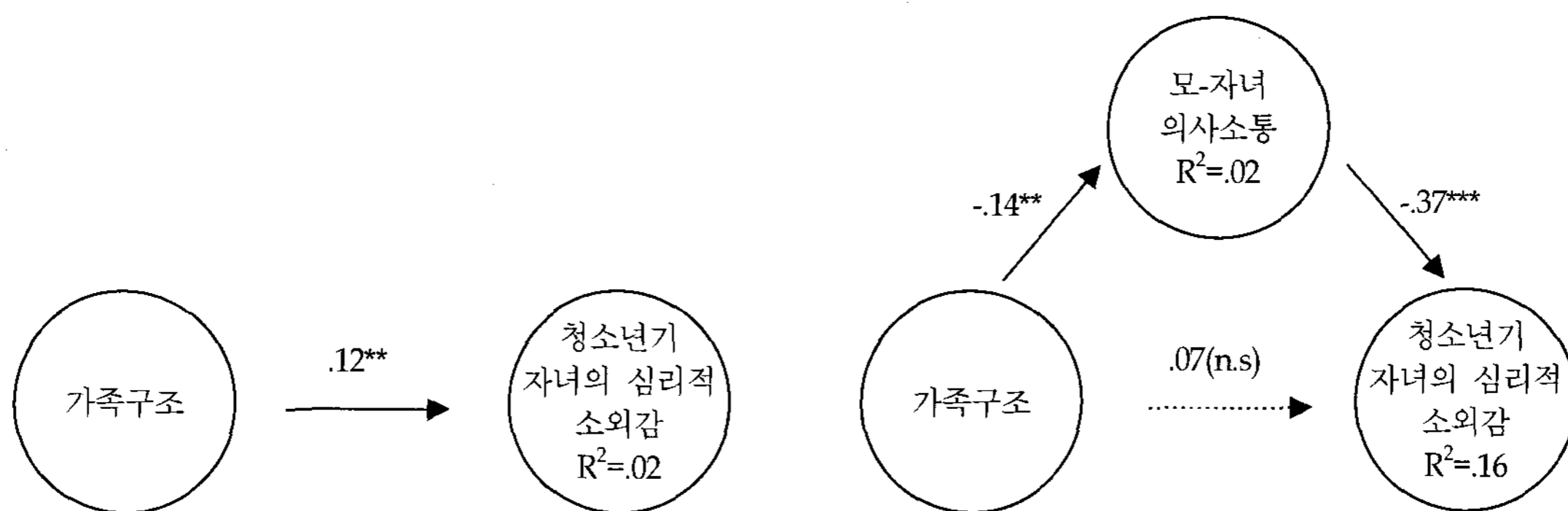
<표 5> 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가족구조의 표준적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F값(df)	R <sup>2</sup>
	B(SE)	모-자녀 의사소통 β		
상 수	74.04(1.69)		11.47(1,546) p=.001	.02
가족구조	-4.75(1.40)	-.14** p=.001		

주) 가족구조 더미변수: 한부모 1, 양부모를 0으로 함  
 주) \*\*p<.01

<표 6>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가족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의 직/간접효과

구 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족구조 → 모-자녀 의사소통	-.14	-.14	-
가족구조 → 청소년 소외감	.12	.07	.05
모-자녀 의사소통 → 청소년 소외감	-.37	-.37	-



<그림 1> 가족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간의 관계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가족 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의 상대적 설명력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가족구조와 모-자녀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소외감은 가족구조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가장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높은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모-자녀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통제한 경우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청소년의 소외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족구조보다 모-자녀 의사소통이라는 가족 기능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표 4>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력이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모-자녀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가족구조를 독립변인으로 표준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5>에서 나타나듯 가족구조는 모-자녀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의 연구결과와 연계되어, <그림 1>과 <표 6>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중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기 자녀는 심리,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양부모 가정에 비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한부모 가정이라는 가족구조와 경제적 어려움의 환경적 특성은 청소년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에 장애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소외감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소외감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심리 특성이라는 점(이은숙·김정숙, 2004)을 고려해 볼 때, 여성 한부모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은 조기에 예방되거나 중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 가정과 함께 살고 있는 82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녀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외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 청소년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외감간의 관계를 부모 양친과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외감간의 관계가 여성 한부모라는 가족구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인지 또는 모-자녀 관계라는 가족기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했으며, 설정된 3개의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에서 보다 많은 불일치와 갈등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Laursen, 2005)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및 자기 유리와 같은 심리적 소외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부모 여성 가구주의 소외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신수아·옥선화, 2001)와 유사하며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한 Gutmann과 Rosenberg(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심리적 소외감 중 개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자기 유리를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소외감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소외감보다 높지만, 소외감을 높이는 하위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은 양부모 가정과 마찬가지로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외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청소년의 우울성향(이은숙, 2007)이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있다거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아동의 우울이 부 또는 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김애경, 2001; 이순형 등, 2005; 이은희 등, 2000)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은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약 15%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이 여성 한부모 또는 양부모라는 가족구조 모두에서 의미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 중 무력감과 자기 유리의 하위영역은 여성 한부모와 양부모의 가족구조에 따라 설명력에 차이를 나타냈다. 무력감의 경우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18% 설명되는 것에 비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은 10%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무력감 향상은 모-자녀 의사소통 개선을 통해 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고는 없다' 또는 '나 자신에게 만족을 느낀 적이 없다'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유리의 경우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여성 한부모 가정(5%)에 비해 양부모 가정(11%)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은 심리적 소외감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소외감 중 자기 유리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극복하는데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자기 유리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유리감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의 설명력이 양부모 가정보다 여성 한

부모 가정에서 낳다는 <연구문제 2>의 결과를 고려해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자기 유리감 완화가 모-자녀 의사소통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중 자기 유리감 극복을 위한 방안 제시가 모-자녀 의사소통의 가족 관계 외 사회적 관계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기초해 친구 관계(이은숙, 2007; 이현림 등, 2004; Heaven, 1994)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 한부모 가정이나 또는 양부모 가정이나 하는 가족구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소외감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내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설명력보다 우선 되는 것은 모-자녀 의사소통 관계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설명하는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모-자녀 의사소통 관계를 통제할 경우 그 설명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구조가 모-자녀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설명하는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모-자녀 의사소통 관계에 의해 중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 한부모 또는 양부모 가족이라는 가족구조보다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모-자녀 관계의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기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양부모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모-자녀 의사소통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은 심리적 소외감을 지각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 계발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긍정적이며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탈소외를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윤나리·김영란, 2004)되고 있는 요즘,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현실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료가 충분히 표집 되지 않은 점은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주의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연구설계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해 남성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음(문화일보, 2008년 4월 2일)을 고려하여 남성 한부모 가정과 여성 한부모 가정 그리고 양부모 가정 내 자녀의 발달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면 한다.

□ 접수일 : 2008년 01월 21일

□ 심사일 : 2008년 03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6월 01일

#### 【참고문헌】

- 강완숙·유안진(2000). 지각된 부/모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8), 69-84.
- 공인숙·이은주·이주리(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25-936.
- 김광수(1990). 소외와 문제행동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심희옥(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김성일·김남희(2001). 사회정서발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오남(2004).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07-519.
- 김오남(2005).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1), 129-144.
- 김오남·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07-124.
- 대구광역시청(2007). 대구통계. [www.daegu.go.kr](http://www.daegu.go.kr)
- 문화일보(2008, 4, 2). 5000만의 행복한 나라로-소수자들의 행복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백경숙·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신수아·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29-141.
- 여성가족부(2005).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안내.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 비교. **아동복지학**, 12, 77-107.
- 윤나리·김영란(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01-113.
- 이순형·이옥경·김지선(2005). 이혼 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 이은숙(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27(4), 576-585.
- 이은숙·김정숙(2004). 고등학생의 소외감과 건강위험행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3), 265-272.
- 이은희·최태산·서미정(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79-84.
- 이현림·장미자·김순미(2004). 교우관계개선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소외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1(3), 181-198.
- 이희자·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31-42.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H. I. McCubbin, A. Larsen,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MN: Univ. of Minnesota.
- Borgers, N., Dronkers, J., & Van Praag, B. M. S.( 1996). The effects of different form of two-and single parent families on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in Deutch secondary education.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 147-169.
- Clark, R. D. & Shields, G. (1997). Family communication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2, 81-92.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nd Eds). Glenview, Ill:Scott, Foresman.
- Gutmann, J. & Rosenberg, M. (2003). Emotional intimacy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mparison between single-parent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Educational Psychology*, 23(4), 457-472.
- Calabrese, R. L. & Adams, J. (1990). Alienation: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5(8), 435-440.
- Heaven, P. C. L. (1994). *Contemporary adolescence: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N.Y.: McMillan
- Heaven, P. C. L. & Bester, C. L. (2001). Alienation and its psychological correlates. *The J. of Social Psychology*, 126(5), 593-598.
- Holcomb-McCoy, C. (2004). Alienation: A concept for understanding low-income, urban clients. *J.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3, 188-196.
- Home, C. D. (1998). Alienation, self-esteem, and perceived self efficacy: A comparison of retuning registered nurse students, prelicensure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major students in Baccalaureate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
- Laursen, B. (2005). Conflict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s in single-mother, blended and two-biological parent family. *Science & Practice*, 5(4), 347-370.
- Mann, S. J. (2001).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student experience: Alienation and engagement.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6, 7-20.
- Murray, A., & Sandqvist, K. (1990). Father absence and children's achievement from age 13 to 21. *Scandinavian J. of Education Research*, 34, 3-28.
- Murray, V. M., & Brody, G. H. (1999). Self regulation and self worth of black children reared in economically stressed, rural, single mother-headed families. *J. of family Issues*, 20(4), 458-484.
- Olson, S. L., Ceballo, R., & Park, C. (2002). Early problem behavior among children from low-income, mother-headed families: A multiple risk perspective. *J. of Clinical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419-430.
- Sankey, M. & Huon, G. F. (1999). Investigating the role of alienation in a multicomponent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J. of Adolescence*, 22, 95-107.
- Seeman M. (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 Sage Basic Book.
- Seeman M. (1975). Alienation studies. In A Inkeles, J. Coleman, & N. Smelser(E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Palo Alto, CA: Annual Review.
- Show, D. S., Winslow, E. B., & Flanagan, C. (1999).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742-755.